광주 정착 탈북 새터민 319명

'따뜻한 남쪽'서도 가난에 떤다

10명 중 3명 실업상태·주택 보유 2% 불과

71%가 기초생활수급자 … 정부 지원 절실

북한을 이탈해 광주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새터민(북한 탈주민)' 10명 중 3명 이상은 실업상태이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새터민은 10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윤승현 광주·전남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소장이 4일 열릴 예정인 '광주지역 북한 이탈주민 정착과정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광주 거주 새터민 정착 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에서 살고 있는 새터민 319명 중 15세 이상(198명)의 36%(71명)가 실업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9월 말 현재 광주시의 실업률(3.5%)에 비해 무려 10배가 높은 것으로, 지역에 정착한 새터민들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의 새터민 가운데 71%(197명)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새터민들의 열악한 삶은 주거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광주의 새터민 가운데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단 2.2%(7명)에 불과했다.

또 전체의 93.7%(299명)가 소형평형의 임대아파트(40~50㎡)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높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소장은 "새터민들의 실업률이 광주 전체의 실업률을 크게 웃돌고, 대다수 새터민이 12~15평 짜리 임대아파트에 사는 등 대부분이 극빈곤층으로 전락했다"며 "새터민들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고 있는 실무자들이 중심이 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새터민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접근, 지역정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과 지역차원의 다양한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새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지원제도와는 별도로 지역단위에서 새터민들을 수용하려는 준비가 돼있는가, 또 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등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현재 광주·전남에는 각각 380명, 344명의 새터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광주지역의 경우 매달 10명가량 새로 전입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사장 윤장현)과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소장 이정강) 공동 주최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NGO센터에서 개최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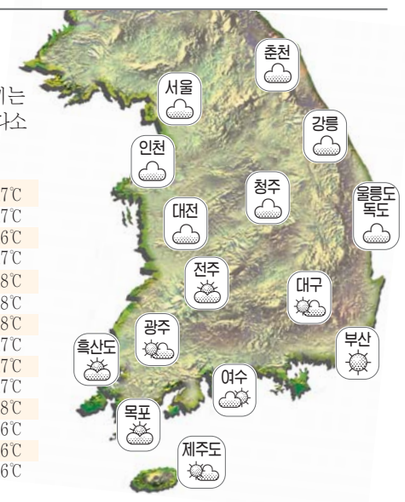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56분 / 해짐 17시 35분 — 달뜸 18시 22분 / 달짐 08시 23분

낮부터 평년기온 회복

곳에 따라 짙은 안개가 끼는 지역이 있겠으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다.

광 주	맑은뒤 흐림	4/17℃
목 포	구름 많음	7/17℃
여 수	흐린뒤 맑음	8/16℃
완 도	맑은뒤 흐림	7/17℃
구 례	맑은뒤 흐림	1/18℃
해 남	구름 많음	4/18℃
장 흥	맑은뒤 흐림	2/18℃
고 흥	맑은뒤 흐림	4/17℃
순 천	구름 많음	4/17℃
영 광	구름 많음	5/17℃
진 도	구름 많음	6/18℃
전 주	구름 많음	5/16℃
남 원	맑은뒤 흐림	0/16℃
흑산도	구름 많음	10/1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먼바다	남서~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낮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먼바다	남서~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1.0~1.5m

	밀물	썰물
목포	02:34 15:17	07:48 20:26
여수	09:52 21:52	03:17 15:54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날 씨						
최저/최고	10/20	11/22	12/23	14/20	13/21	12/20

광주시 건축상 금상 '세계광엑스포 주제전시관'

조성호 건축사 설계 … 남광건설 시공

제13회 광주시 건축상 금상에 상무시민공원의 '세계 광엑스포 주제 전시관'이 선정됐다. (주)남광건설이 시공하고, (주)광주공간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세계광엑스포 주제전시관'은 빛의 근원인 우주와 행성의 이미지를 유추해 표현한 독창적인 작품이다.

특히 사후 활용에 대비해 입체 놀이터와 간결한 동선처리 빛 타워의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상에는 전통민속 놀이인 고싸움놀이를 형상화한 '4D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북구 운암동 '문화여성병원'이, 동상에는 '북구 청소년 수련관 별관'과 '라마다 프라자 호텔',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가 각각 선정됐다.

올해 '광주시 건축상'에는 모두 17점의 작품이 응모했으며, 대학교수, 시민대표, 언론인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광주공간건축 조성호 건축사는 "우주의 빛을 형상화하는 작업이 어려웠지만, 그 과정을 거쳐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내 기쁘다"며 "문화수도를 상징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광주에 지속적으로 들어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축상에 응모한 17개 작품은 '도시건축문화제' 행사기간인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시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철도노조 5~6일 파업해도

광주 KTX·새마을호 정상운행

전국철도노조가 오는 5~6일 이틀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코레일 광주본부는 무궁화호 열차와 일부 화물열차를 제외한 KTX와 새마을호는 모두 정상운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이날 비상대책본부를 구성, 대책 회의를 연 뒤 이 같이 결정했다. 5일 운행이 중단될 무궁화호 열차는 광주~목포(오전 6시55분), 목포~부산(오전 9시), 목포~광주(오전 9시40분), 목포~용산(오후 2시20분), 목포~순천행(오후 2시55분) 등 9대다.

화물열차의 경우 흥국사~나주(오전 6시39분), 온산~효천(오전 11시3분), 효천~온산(오후 12시5분), 나주~흥국사(오후 8시38분) 등 4대를 제외한 모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된다. 6일에는 광주~대전(오전 5시45분), 용산~목포(오전 7시5분), 목포~용산(오후 2시20분) 등 3대의 무궁화호 열차운행이 중단된다.

열차지연 등 불편신고는 코레일 철도고객센터 1544-7788 또는 1588-7788로 하면 된다. 한편,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측의 임·단체협상에 대한 불성실 교섭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6.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기름·폐유 해상 유출 65건 적발

목포해경, 3건 형사입건

기름과 폐유 등 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바다에 버린 해양오염사범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1주일간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총 6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해경은 이 가운데 기름과 폐유를 바다에 버린 3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62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 유형별로는 해양배출 오염행위 3건, 의무규정 위반 21건, 행정질서 위반 4건 등이었다.

김용환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상 유출유 분석 등 수사기법의 현대화로 해양오염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광주 주류·담배 판매업소 10곳 중 4.5곳

청소년에 술·담배 판다

소비자시민모임 조사

광주지역 주류·담배 판매업소 10곳 중 4.5곳이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41일간 광주 등 전국 16개 시·도의 주류판매업소 2천822곳과 담배판매업소 2천793곳에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술과 담배 구입을 시도한 결과, 술은 47%(1천325곳), 담배는 40.5%(1천130곳)에서 가능했다.

특히 공원매점이나 가판대 등에서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 비율이 각각 55.6%, 60.3%에 달했고 편의점의 경우 술이 51.6%, 담배가 43.5%였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는 무려 74.0%의 업소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고 이어 인천(66.7%), 경남(61.5%), 제주(56.0%)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51%의 판매율을 보였다.

담배의 경우 경남(67.7%), 대구(60.8%), 인천(58.7%), 서울(50.6%) 등에서 청소년 대상 판매율이 높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청각 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 취득 가능

청각 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 개선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그동안 듣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단,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제외된다.

또 대리석이나 쇠로 만들어져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부상 위험이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충격흡수 재질로 바뀌고,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가 저상버스로 교체된다.

/연합뉴스